

투데이 칼럼

일론 머스크, “리스크는 인생의 연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핵심 실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질서 파괴자’를 자임하며 모든 공공기관에 발상의 전환을 통한 혁신과 효율성 극대화를 압박하고 있어사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신설한 정부효율부(DOE) 초대 수장을 맡은 그는 미국 공공부문에 긴 거대한 거품을 없애는 일에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예산(2024회계연도 6조9000억 달러)의 3분의 1에 가까운 2조 달러를 감축할 수 있다고 공언한 데 이어 “428개에 달하는 연방기관은 99개면 충분하다”고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중앙은행(fed)을 향해 “터무니없이 인력 과잉”이라는 직격탄도 날렸습니다.

온갖 문제에 독설을 서슴지 않아 ‘과짜’ ‘미치광이 천재’ 등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공공부문 비효율에 대한 그의 불신은 뿌리가 깊습니다.

스페이스X를 설립해 우주로켓 시장을 독점해 온 미국우주항공국(NASA)에 일격을 가한 게 신포호탄이었습니다. 로켓 발사체는 한번 쏘아 올리면 수명이 끝난



이 학 영
경제사회연구원 고문

다는 게 상식으로 여겨졌지만 전체 발사비용의 60%를 차지하는 1단 로켓을 재활용하는데 성공, NASA 과학자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이 한 두 번이 아니라 23차례나 재활용에 성공하자 재사용 목표를 40회로 늘렸습니다.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매일경제신문 최근 기고문 “그의 혁신은 기존의 방식을 다시 생각하(Rethink),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며(Réimagine),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재창조하는(Réinvent) 3R을 통해 가능했다”고 정리했습니다. 조선일보에는 ‘머스크가 승부에서 이기는 법’ 기사에서 이 ‘3R’을 또 다른 말로 설명했습니다. “기꺼이 리스크(위험)를 감내하되, 세밀한 실험

행력과 디테일로 이를 극복한다.”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체 귀환 프로젝트가 단적인 예입니다. “발사 하루 전 엔진 주요 부분에서 균열이 발견됐다. 당시엔 엔진을 통째 교체하는 것이 일 반적 해결책이었다. 발사가 수주일 연기되고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머스크는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교체 대신 균열 부분을 잘라내기로 했다. NASA의 엔지니어들은 미친 짓이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발사 실패의 리스크를 감수, 오히려 스페이스X의 기술력을 입증하고 NASA의 주문도 따내는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엔진에 대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히 어느 정도 잘라낼지 지시했다. 로켓 발사는 성공했고, 본격적인

민간 우주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 순간으로 기록됐다.”

테슬라에서 세단 전기차 ‘모델S’를 개발할 때도 그랬습니다. 양산차인 ‘모델S’ 출시가 늦어지면 테슬라는 자금난으로 파산 위기에 내몰릴 상황이었습니다. 머스크는 매일 엔지니어들을 소집해 밀리미터 단위로 배터리 크기를 줄이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런 디테일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이 갈린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엔지니어들은 목표로 한 주행 거리를 위해선 최소 8,400개 배터리 셀이 탑재돼야 한다고 했는데, 머스크는 배터리 크기를 더 줄이라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지시하지 않았다. 7,200개라는 명확한 숫자를 목표로 제시하고 몰아붙였다.” 엔지니어들은 배터리 설계를 바꿨으며 개발에 몰두했고, 결국 7,200개라는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머스크는 리스크를 ‘인생의 연료’라고 말합니다. 성공을 향한 동력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테일한 부분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반복하는 해법으로 위기를 돌파한 사례가 많습니다. “나는 마이크로(100만분의 1)보다 더한 나노(Nano·10억분의 1) 매니저”이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발트3국, 러시아 전기 끊고 유럽 전력망과 동기화



9일(현지 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발트 에너지 독립의 날’ 행사가 열려 참석 정상들이 상징적 전력망 동기화 퍼포먼스를 마친 후 박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요코 알렌더 에스토니아 기후장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에드가스 린케비치 리트비아 대통령. 리투아니아, 리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해 연안 3개국은 러시아, 벨라루스와 연결됐던 전력선을 끊고 9일 유럽 전력망에 편입됐다.

필라델피아, 캔자스시티 3연패 막으며 슈퍼볼 정상



필라델피아 이글스 선수들이 9일(현지 시간) 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시저스 슈퍼돔에서 열린 2024-25 미국미식축구리그(NFL) 제59회 슈퍼볼 정상에 올라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필라델피아는 3연패를 노리던 캔자스시티 치프스를 40-22로 꺾고 정상에 올랐으며 통산 2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사설

딥시크 돌풍 주역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深度求索)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 속에도 저비용으로 고성능 AI 모델을 선보였다. 딥시크는 실리콘밸리 빅테크들보다 훨씬 적은 개발비로 그에 필적하는 성능을 갖췄다.

최신 AI모델 딥시크-V3의 경우, 창업자 량원펑(梁文鋒)을 비롯한 중국인 연구자·엔지니어 150명과 데이터 자동화 연구팀 31명이 개발을 이끌었다.

연구·개발(R&D) 인력이 130명에 불과하며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연구원만 1천200명이 있는 것과 비교된다. 대부분 중국 명문대를 졸업했거나 석·박사 과정 중에 있다.

20대~30대 초반으로 젊으며 팀리더급도 대부분 35세 미만이다. 1985년생으로 광둥성 출신인 량원펑은 공학 분야 명문대에서 전자정보공학 전공으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다.

수학·통계 모델과 컴퓨터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퀀트 투자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다. 2015년 대학 동창들과 함께 퀀트 헤지펀드 하이플라이어(High-Flyer, 幻方量化)를 공동 설립했다.

최근 리창 국무원 총리가 주재한 교육·과학·문화·보건·스포츠 분야 전문가 좌담회에 AI 업계 대표로 참가했을 때 언론들은 ‘로기’ 성향의 ‘퀀트천왕’이 공개 행보에 나섰다며 주목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도 AI 분야의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가 직격탄을 맞으며 국내 기업도 단기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AI 생태계의 지반이 넓어질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AI 기술 외에도 고성능 반도체 설계, 첨단 공정 기술 등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면서 차별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계엄 관련 구속 기소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헌정사 처음이다.

고심을 거듭한 검찰은 결국 ‘구속기소’를 선택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 한 건 지난 1월 27일로 끝나는 구속 기간을 하루 앞둔 26일 저녁이다.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건 우리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지난 1월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초 2월 초까지 조사를 벌인 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할 것으로 알

려졌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두 차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면 조사 없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이번 기소로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뀐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기소 결정 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는 입장을 냈다.

또 형사소송법의 영장실질심사 공제 규정 등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지난 1월 25일로 끝났다는 주장을 이어 나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놓고 여야 간 논란이 거셀 조짐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우려만 커지고 있다. 특히 나라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서민 경제는 이미 수렁 속에 빠져 들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